

전동 킥보드 정보, 앱 하나로 확인

국토부, PM데이터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TAGO로 통합·개방
위치·충전 상태 등 실시간 조회...대중교통과 연계 길찾기 서비스도



전동 킥보드의 위치와 충전 상태 등 실시간 정보가 통합·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유PM(개인형이동수단) 업체 11곳과 PM 데이터를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로 통합하고 개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TAGO는 시내버스, 지하철, 고속·시외버스 등의 실시간 정보를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민간 플랫폼은 이를 기반으로 길 찾기 서비스 등을 시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유PM(개인형이동수단) 업체 11곳과 PM 데이터를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로 통합하고 개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TAGO는 시내버스, 지하철, 고속·시외버스 등의 실시간 정보를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민간 플랫폼은 이를 기반으로 길 찾기 서비스 등을 시행 중이다.

전동 킥보드의 위치와 임대·충전 상태 등이 TAGO에 연계되면 이용자는 업체별로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앱으로 확인할 수 있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전동 킥보드 간 길 찾기 등의 연계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플랫폼

앱의 길찾기 서비스는 버스·지하철·도보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돼 전동킥보드와 연계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공유PM 업체 간 정보 공유로 전동 킥보드가 특정 지역에 밀집되지 않고, 무단 방치 전동 킥보드도 신속히 이동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연계된 공유PM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세종에서 정보 공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의 4개 업체 공유PM 데이터를 수집해 TAGO에 연계하고, 연내 티머니 앱을 통해 통합 데이터를 제공한다.

향후 시범서비스 결과를 토대로 11개 PM 운영사의 데이터 연계·통합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정보와 민간 PM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국민의 이동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PM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을 위해 PM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I, 인간 행복에 부합하게 개발돼야”

정부 부처 ‘인권위 AI정책 인권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공지능(AI) 정책을 수립·이행할 때 인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권고를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기관장들이 수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인권위는 올 5월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투명성과 설명 의무 ▲자기 결정권의 보장 ▲차별금지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시행 ▲위협도 등급 및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을 뼈대로 한다.

인권위는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AI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유기적으로 조정·통합하라고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는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AI 관련 정책의 수립·이행, 관계 법령 제·개정,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준수 여부 관리·감독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무총리가 관련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답했고, 부처 장관과 기관장들도 권고 취지에 공감한다며 AI 정책과 사업·제도 개선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겠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의 권고 수용에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며 “향후 가이드라인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관련 법령과 정책 제도를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 초등생 인공지능 이해도 높이기

국립광주과학관, 다음달 5~6일 인공지능 아카데미

국립광주과학관이 광주 학생들의 인공지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2 인공지능 아카데미’를 11월 5일과 6일 개최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국립광주과학관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과 국립광주과학관 곳곳을 탐방하는 행사로 구성됐다.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만들기 체험, 주제선택형 교육(퀵드로우 미션, 나만의 AI 캐릭터

터 만들기, 신기한 인공지능 작곡), 태플릿 PC 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광주시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 모집은 과학관 누리집(<https://www.sciencecenter.or.kr>)을 통해 11월 4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스마트폰으로 밤하늘 촬영해 보아요
국립광주과학관, 28일까지 청소년 대상 ‘천체사진 공모전’

태양, 달, 행성, 밤하늘 풍경...천체사진을 주제로 하는 공모전이 열린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이달 28일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천체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천문과 별자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천체 관련 분야를 주제로 한 작품이 대상이며

1인당 2개까지 출품할 수 있다.

공모전 참여는 신청서와 함께 사진작품을 이메일(sj@gnsn.or.kr)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통합 금상 1명을 비롯해 부문별 은상과 동상을 각 1명씩 총 5명을 선발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카카오 “유료 서비스 보상금 400억 정도”

과기부 종합감사 홍은택 대표 출석...가입자 피해 사례 다음주까지 접수

카카오가 ‘먹통 사태’를 야기한 SK 주식회사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임대료 등으로 올해 지출한 금액이 약 2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이 데이터센터에서 서버 3만2000 대를 뒀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판교 데이터센터에 낸 금액을 묻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의 질문에 “올해 200억 원쯤 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카카오 매출이 2021년 기준 약 6조8천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0억 원은 3%에 불과해 서비스 유지·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훨씬 더 강도 높게 인프라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도 이번 먹통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의 전산 시설 관리를 ‘핫 사이트’ 수준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핫 사이트는 시스템 장애를 대비해 서버와 데이터 등을 미리 설치해둔 백업 사이트를 뜻한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200억원은 데이터센터 한 곳에 지급하는 공간 임대 비용”이라며 “이와 별개로 카카오는 서버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 구입·관리·운영 및 관련 인력을 포함해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인프라 비용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아울러 “현재까지 카카오 서비스에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4만 5000건이 신청됐다”며 “간접 피해가 많아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홍은택 대표는 무료 서비스 가입자 약 4500만 명 중 보상 대상은 언제,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 “지난주 수요일(19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다음 주 화요일(11월 1일)까지 피해 사례를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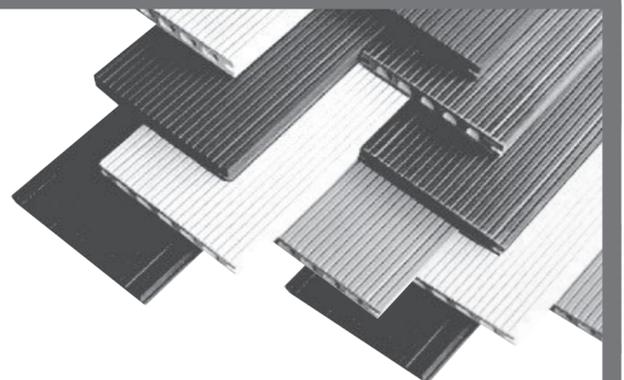
홍 대표는 또 이번 먹통 사태 후속 조치로 카카오 서비스 이용 기한 연장과 이용액 환불 등 유료 서비스 보상에 들 예상 금액을 묻는 무소속 박원주 의원의 질문에 “400억 원 정도”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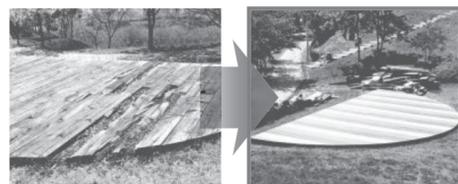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